

## 아동 발달단계별 아동학대 특성 연구

배 화 옥  
(경상대학교)

강 지 영\*  
(숙명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아동 발달단계별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대유형이 무엇인지, 발달단계별 학대의 증감추이는 어떠한지, 그리고 증감추이를 집단유형으로 분류하였을 때 유형별 관련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한국복지패널 1차, 4차, 7차 아동자료 조사에 모두 응답한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381명과 그 부모이다. 기술적 통계를 활용하여 학대유형의 빈도 및 증감추이를 살펴본 후 잠재집단분석을 통하여 아동학대 지속 혹은 변동을 유형화하였고, 비모수 분산분석 및 카이제곱검정을 활용하여 유형별 관련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신체학대와 언어학대는 전기 청소년기에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방임은 아동기에 가장 높았으나 청소년기를 지날수록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학대 미발생형, 증가형, 지속형의 3개 유형을 발견하였으며, 집단간 관련요인에서 차이를 보였다. 아동학대 지속형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부부간의 폭력이 높은 수준을 보였고 증가형의 경우 높은 한부모 가구 비율과 가족 내 갈등을 나타내었다. 발달단계별 학대의 증감추이와 관련하여서는 전기 청소년기에 신체 및 언어학대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기 청소년기의 학대 발생 예방전략 및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다.

**주요용어:** 아동발달단계, 아동학대 및 방임, 발생 유형, 잠재집단분석

본 연구는 제8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강지영, 숙명여자대학교(jykang@sookmyung.ac.kr)

■ 투고일: 2016.1.26    ■ 수정일: 2016.3.14    ■ 게재확정일: 2016.3.18

## I. 서론

아동학대는 아동의 전 연령에 걸쳐 발생한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 학대유형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연령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아동의 성장발달에 힘입어 학대가 중지되거나 감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동에 따라서 학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기도 하고, 일부 아동에게서는 오히려 새로운 학대유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아동이 경험하는 학대유형이 아동 발달단계별로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Bae, Solomon, & Gelles, 2007; Way, Chung, Jonson-Reid, & Drake,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발달단계 마다 특정 학대유형이 보다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방임은 영유아기나 보육기와 같은 저연령대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가 아동이 성장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방임과 달리, 다른 학대유형은 학령기를 지나 청소년기에 이룰수록 오히려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편이다(Barth, Courtney, Berrick, & Albert, 1994; Raissian, Dierkhising, Geiger, & Schelbe, 2014).

아동 발달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학대유형의 특징은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성적 성장 발달과 무관하지 않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하는데, 영유아기 및 보육기에는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 미숙한 영유아나 보육아동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을 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배화옥, 강지영, 2015; Slack, Holl, Altenbernd, McDaniel, & Stevens, 2009). 이와 달리 아동이 학령기에 접어들게 되면 부모로부터의 훈육과정에서 신체학대나 정서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학령기 아동의 언어발달 미숙과 학교부적응은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예측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실제로 이 시기에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발생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다(Barth et al., 1994).

청소년기는 아동이 신체적, 심리사회적, 성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아동은 불안과 인터넷 중독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나 심하게는 거짓말, 도벽 등의 문제행동을 노출하기도 한다. 청소년기의 이러한 문제행동은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청소년이 반항, 거짓말 등 심리·정서적 문제와 일탈 혹은 비행 등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면 보호자는 훈육의 좌절과 양육스트레스로 인하여 아동학대를 일삼는다는 것이다(Belsky, 1993). 실제로 청소년기 아동의 성격이나

기질문제나 이 시기에 자주 노출되는 문제행동은 아동학대와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기 아동은 다른 연령대 아동에 비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것이다(Barth et al., 1994; McBride, Schoppe, & Rane, 2002; Mersky, Berger, Reynolds, & Gromoske, 2009; Raissian et al., 2014). 또한 청소년기는 매우 급격한 성의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2차 성징이 발달되는 청소년기 아동 특히 여아에게 성학대가 자주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여아는 성학대에 더욱 취약함이 입증되고 있다(Putnam, 2003).

후기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아동의 체력이 가해자와 역전되기 때문에 신체학대는 감소한다. 또한 후기 청소년기 아동의 뛰어난 어휘력이나 사회성 발달은 학대에 대한 이해와 반응을 다르게 하여 아동학대의 발생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 청소년들은 대학진학을 위한 학업에 몰두하면서 가정에서 부모와 같이 지내는 시간이 줄어들어 따라 학대가 감소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상을 요약하면 저연령대에서는 방임을 경험하였다가, 학령기에 들면서 신체학대나 정서학대를 더 경험하게 되고, 후기 청소년기에 들면서 학대에서 벗어나는 등 아동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학대 비율이 일정하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국내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학대유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학대유형별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도 그 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국내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험적 연구로는 장화정, 강미경, 신소현(2000), 김혜영과 장화정(2002), 장화정(2004), 이현기(2005)의 연구가 있다. 김현옥과 김경호(2011)의 연구는 방임에만 초점을 두었고, 이봉주와 김세원(2005), 김광혁과 김예성(2008)의 논문은 아동학대와 방임의 으뜸요인으로서 빈곤을 조명한 연구이다. 따라서 아동 발달단계별 아동학대 특성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학대 특성에 대한 연구는 아동의 성장발달을 고려한 학대 예방정책 및 실천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아동 발달단계별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대유형은 무엇인지, 아동 발달단계에 따라 학대가 지속되는지 아니면 감소 혹은 증가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증감추이를 유형화하였을 때 관련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질의는 다음과 같다.

- 1) 아동 발달단계에 따라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대유형은 무엇인가?
- 2) 아동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학대는 지속되는가 아니면 증가 혹은 감소하는가? 이러한 증감추이에 따라 어떤 집단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 3) 아동학대의 증감추이를 집단유형으로 분류하였을 때, 유형별 관련요인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논의

### 1. 아동 발달단계

발달이란 임신에서부터 시작하여 전 생애에 걸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어나는 여러 측면의 지속적인 변화를 의미한다(Santrock, 1998, p.16). 아동발달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규칙성 가운데 하나가 발달의 연속성 및 불연속성이다. 발달은 연속성과 불연속성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연속성은 발달이 도중에 멈추지 않고 연속적이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발달의 속도가 개인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도중에 멈추지 않고 꾸준히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달이 느리고 정지한 것처럼 보여도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발달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뚜렷한 발달단계를 보이기도 한다. 발달이론 학자들에 의하면 신체, 인지, 정서의 측면에서 분명하게 구분되는 단계를 보이면서 발달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가령 말하기 능력과 같이 질적으로 차별화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발달을 이루기도 하며, 2차 성장과 같은 신체적 특성은 시작시기와 종결시기가 뚜렷하게 구분되기도 한다.

아동 발달단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발달이 누적적이라는 데 있다. 아동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전 단계의 발달이 다음 단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초기의 경험이 누적되어 다음 단계의 발달을 결정하게 된다. 이 때문에 초기 발달단계에서 성취해야 할 과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손이 누적되어 후기 발달단계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초래한다고 본다. 이 경우 아동발달이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Santrock, 1998).

아동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한다는 견해를 가지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Freud(1856~1939), Erickson(1902~1994), Piaget(1896~1980) 등이다. 특히 Erickson은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8개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를 거친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발달단계마다 아동은 심리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각 단계의 위기를 잘 해결하여야만 다음 단계로 발달해 나가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인지발달이론학자인 Piaget는 아동발달단계를 감각운동기(0~2세), 전조작기(2~7세), 구체적 조작기(7~11세), 형식적 조작기(11~18세)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발달하는 인지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였다(Saeifert & Hoffnung, 2000).

아동의 연령대는 발달이론학자들이 규명한 아동발달이론 및 발달단계 분류를 근거로 하여 범주화된다. Thomas(2000)는 Erickson의 아동발달이론 및 발달단계 분류에 근거하여 아동의 연령대를 영유아기(0~1세), 걸음마기 혹은 유아기(2~3세), 놀이기 혹은 보육기(4~6세), 학령기(7~12세), 청소년기(13~18세)로 구분하였으며, 학자에 따라 청소년기를 전기 청소년기(12~15세), 후기 청소년기(15~18세)로 구분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학령기 아동은 주로 초등학교에, 청소년기 아동은 주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시기를 통상 아동기로 보는 반면, 중·고등학교 시기를 청소년기로 보고 있다(배화옥, 2010).

아동발달이론학자들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학령기 아동, 중학교의 전기 청소년기 아동, 고등학교의 후기 청소년기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심리사회적 발달이 실제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학령기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훈육과 더불어 신체학대나 정서학대가 시작될 수 있다. 또한 학령기 아동은 가정을 벗어나 학교라는 환경(context)에서 교사와 또래를 만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성 발달 및 학습능력이 향상된다. 이 시기 아동의 언어발달 미숙과 학교부적응은 정서학대와 신체학대의 예측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McBride et al., 2002; Mersky et al., 2009).

청소년 시기 또한 학교에서 주로 생활이 이루어지며,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청소년은 신체적으로 매우 급격한 변모를 경험하는데, 성 정체성을 획득하는 동시에 자아를 확립하고 심리사회적 기술을 터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Steinberg & Morris, 2001). 학령기 때의 일차적인 언어발달과 사고능력을 넘어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여 어휘의 구사력이 현격하게 늘어난다. 특히 전기

청소년기 아동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며 이 때 고도의 위험행동을 노출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기 청소년기 아동의 거친 성격이나 행동은 부모와의 관계의 질을 악화시키고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Jonson-Reid, 2002; Mersky et al., 2009).

## 2. 아동 발달단계별 학대유형

아동학대는 아동의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지만 아동 발달단계별로 발생하는 학대유형이 동일하거나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대유형이 발견된다.

초기 연구에 의하면 방임은 영유아기와 보육기에 각각 31%와 30%로 가장 높게 발생한 반면, 신체학대와 성학대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증가하여 후기 청소년기에 각각 38%와 27%를 보이면서 가장 높은 발생비율을 나타내었다(Barth et al., 1994). 또 다른 연구에서도 방임은 0~5세 사이에 60.3%로 가장 높았다가 이후 계속해서 낮아지는 반면, 신체학대와 성학대는 연령의 증가와 함께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심리적 학대는 10~14세 전기 청소년기에 가장 높은 비율을 구성하였다(Palusci, 2011). 최근 연구에 의하면 아동의 연령을 0~5세, 6~12세, 13~18세로 분류하였을 때 방임은 아동의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73.7%로부터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신체학대와 성학대는 20.7%와 6.4%에서 점차 증가하였으며, 정서학대 또한 연령대가 오를수록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Raissan et al., 2014).

우리나라의 학대유형별 발생비율은 해외 결과와 다소간 차이가 있다. 2014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2015)에 의하면 우선 아동의 연령대에 따른 전체 학대피해 비율은 전체 15,458건 가운데 영아기(1세 미만) 2.1%, 유아기(1~3세) 11.1%, 보육기(4~6세) 13.1%, 전기 학령기(7~9세) 18.7%, 후기 학령기(10~12세) 21.6%, 전기 청소년기(13~15세) 23.9%, 후기 청소년기(16~17세) 9.5%로,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전기 청소년기에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다가 후기 청소년기에 급격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체 학대유형별 피해비율은 신체학대 14.5%, 정서학대 15.8%, 성학대 3.1%, 방임 18.6%, 그리고 중복학대가 48.0%로 중복학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복학대 가운데서도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중복학대가 3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중복학대를 풀어서 단일유형으로만 분류하였을 때 신체학대 36.9%, 정서학대 40.0%, 성학대 2.7%, 방임이 20.3%로 나타나 정서학대와 신체학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발달단계와 학대유형을 교차한 결과,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는 전체 아동의 학대피해 비율과 매우 유사한 양태를 보여주었다. 즉 아동 발달단계에 따라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는 점차 증가하여 전기 청소년기에 가장 높았다가 후기 청소년기에 대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학대의 경우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나 증감 폭에 약간 차이가 있다. 성학대의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전기 학령기까지 전체 비율에 하회하다가 후기 학령기 25.3%, 전기 청소년기 35.1%로 압도적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성학대는 후기 청소년기에도 발생비율이 15.9%로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가장 높았다. 반면 방임의 발생비율은 영유아기 25.6%, 보육기 15.9%, 전기 학령기 19.6%, 후기 학령기 19.2%, 전기 청소년기 15.0%, 후기 청소년기 4.7%였다. 즉 방임은 영유아기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청소년기에 들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며 특히 후기 청소년기에는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이상을 요약하면 방임을 제외하고 중학교 시기인 전기 청소년기에 모든 학대유형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아동 발달단계별 즉 연령대별로 아동학대가 어느 정도 재발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해외에서도 찾기 어렵다. 일 연구에서는 초기 연령대에서 아동학대가 재발생할 확률이 높은 반면(Fryer & Miyoshi, 1994), 다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12~17세) 아동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재발생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동의 법적 연령이 성인으로 옮겨감에 따라 재발생 사례가 포착되지 못할 수 있음도 지적되었다(Fluke et al., 1999).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방임, 성학대, 신체학대 모두 다 저연령대에서 재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재발생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방임의 경우 성학대와 신체학대에 비해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Drake, Jonson-Reid, Way, & Chung, 2003).

### Ⅲ. 방법론

####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의 1차(2006년), 4차(2009년), 7차(2012년)년도 조사에 모두 응답한 아동과 보호자이다.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 전국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선정된 7,072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환경에 관련된 조사를 시작하였고 이후 매년 직접면접조사를 통해 사회복지환경에 관한 종단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2015년까지 총 10차에 걸쳐 자료가 수집된 상태이다. 가구자료, 가구원 자료, 부가자료로 구성되며 아동자료는 부가자료의 일부로 1차 년도를 포함하여 4차, 7차 년도에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차, 4차, 7차 3개 년도의 아동자료 조사에 모두 응답한 초등학교 4~6학년 아동과 보호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아동자료와 가구자료, 가구원 자료를 사용하였고 같은 가구에서 2인 이상의 아동이 조사된 경우 한 명만을 임의 추출하였다. 또한 아동이 가구주와 부모-자녀 관계인 경우만을 선정하여 최종 382명의 아동이 연구대상으로 포함되었고, 이 가운데 극단치를 지닌 관측치 1개를 제외한 총 381명을 최종 표본에 포함하였다.

#### 2. 연구변인

##### 가. 아동학대 유형

한국복지패널 아동부가조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문항 중, 1차, 4차, 7차 년도 3회에 걸쳐 신체학대, 언어학대, 방임의 측정을 위해 사용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먼저 신체학대는 1차 년도에 사용된 문항 중 ‘부모님이 물건을 던져 내가 맞은 일’, ‘부모님 발에 차이거나 맞은 일’, ‘부모님이 휘두르는 몽둥이로 맞은 일’의 3개 문항이며, 4차 년도와 7차 년도에 사용된 문항 중에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있다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아동들은 이 문항들에 대해 ‘전혀 없었다(0)’, ‘1년에 1~2번 정도(1)’, ‘2~3개월에 1~2번 정도(2)’, ‘한 달에 1~2번 정도(3)’, ‘일주일에 1~2번 정도(4)’로 응답하였다. 1차 년도의 문항 중 하나 이상에 ‘1년에 1~2번 정도(1)’ 혹은 그 이상의



빈도로 응답한 경우 신체학대를 받은 것으로 정의하여 이분화 변수화 하였고, 4차 년도 및 7차 년도에 사용된 문항에 '1년에 1~2번 정도(1)' 혹은 그 이상의 빈도로 응답한 경우 각 년도에 신체학대를 받은 것으로 정의하여 이분화 변수로 만들었다.

언어학대는 1차, 4차, 7차 년도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항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일이 있다', '부모님이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거다'라고 비슷하게 말한 적이 있다, '부모님이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이며, 아동들은 이 문항들에 대해 '전혀 없었다(0)', '1년에 1~2번 정도(1)', '2~3개월에 1~2번 정도(2)', '한 달에 1~2번 정도(3)', '일주일에 1~2번 정도(4)'로 응답하였다. 3문항 중 하나라도 '1년에 1~2번 정도(1)' 혹은 그 이상의 빈도로 응답한 경우 해당 년도에 언어학대를 받은 것으로 정의하여 이분화 변수화 하였다.

방임은 1차, 4차, 7차 년도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문항 중 '내가 늦게 와도 부모님은 관심이 없다', '부모님은 이유 없이 내가 결석해도 아무 말도 안한다', '내가 몰래 돈을 가져가도 모른체 한다'의 3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아동들은 이 문항들에 대해 '전혀 없었다(0)', '1년에 1~2번 정도(1)', '2~3개월에 1~2번 정도(2)', '한 달에 1~2번 정도(3)', '일주일에 1~2번 정도(4)'로 응답하였다. 3문항 중 하나라도 '1년에 1~2번 정도(1)' 혹은 그 이상의 빈도로 응답한 경우 해당 년도에 방임이 발생한 것으로 정의하여 이분화 변수화 하였다.

## 나. 아동, 부모, 가구요인

아동의 발달단계별로 아동학대 발생 및 재발생을 유형화한 후 관련요인으로 예측되는 아동, 부모, 가구 특성을 선정하여 투입하였다. 아동 나이와 부 및 모의 나이는 1차 년도 조사 시 가구자료에서 측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부의 우울과 모의 우울은 1차, 4차, 7차 년도 가구원 자료에서 부와 모가 각각 우울에 대한 11개의 문항에 대해 응답한 값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사용된 문항은 '식욕이 없음', '비교적 잘 지냈다', '상당히 우울',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짐', '잠을 설침', '외로움', '불만 없이 생활', '사람들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 '마음이 슬펐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 '뒤편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음'이며, 이에 대해 부와 모는 '대체로 그렇지 않다(1)', '보통이다(2)', '대체로 그렇다(3)', '항상 그렇다(4)'로 응답하였다. 긍정적으로 서술된 문항의 경우

역으로 코딩하여, 총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부가 보고한 모의 언어폭력과 모가 보고한 부의 언어폭력은 1차, 4차, 7차 년도 가구원 자료에서 부와 모가 각각 응답한 2개의 문항의 총합을 각각 사용하였고 총합이 높을수록 언어폭력이 빈번함을 의미한다. 사용된 문항은 '배우자가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배우자가 악의적인 말을 하였다'이며 부와 모는 각각 문항에 대해 '전혀 없음(0)', '1~2번(1)', '3~5번(2)', '6~10번(3)', '11번 이상(4)'로 응답하였다.

부가 보고한 모의 신체폭력과 모가 보고한 부의 신체폭력은 1차, 4차, 7차 년도 가구원 자료에서 부와 모가 각각 응답한 총 9개의 문항의 총합을 각각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합이 높을수록 신체폭력이 빈번함을 의미하며 '나에게 물건을 던졌다', '나를 세계 밀쳤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등의 문항에 대해 부와 모는 '전혀 없음(0)', '1~2번(1)', '3~5번(2)', '6~10번(3)', '11번 이상(4)'으로 응답하였다.

가구 특성 중 저소득층 여부는 1, 4, 7차 년도 조사값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균등화 소득 60%를 기준으로 '저소득가구(1)'와 '일반가구(0)'로 나누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는 1, 4, 7차 년도 조사값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수급(1)'과 '비수급(0)'으로 나누어졌다. 한부모 가정은 가족형태가 한부모 가정인지 아닌지에 대한 더미 변수로 조작화하였고(한부모=1, 일반=0), 1, 4, 7차 년도 조사값을 각각 모두 사용하였다.

가족 내 갈등은 1, 4, 7차 년도 가구원 자료로부터의 조사값을 모두 사용하였고, 총 5개의 문항에 대한 값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긍정적으로 서술된 문항의 경우는 역으로 코딩하여 총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갈등이 많음을 의미한다. 사용된 5개의 문항은 '가족원간의 의견충돌이 잦은 경우', '가족원간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경우', '가족원간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하는 경우', '가족원간 자주 서로 비난하는 경우', '가족원간 가끔 때리는 경우'이며 이에 대해 응답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그런 편이다(4)', '매우 그렇다(5)'로 응답하였다.

### 3. 분석방법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표본의 특성 및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신체, 언어학대 및 방임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그리고 아동의 발달단계별로 학대 발생유형의 변동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아동이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신체학대, 언어학대, 방임의 발생 및 재발생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잠재집단분석은 측정된 이분화 변수를 활용하여 표본 내 개인들의 관찰되지 않은 하위 유형별 집단을 분류를 목적으로 한다(Lazarsfeld & Henry, 1968). 본 연구에서는 신체학대 경험여부(1차년도, 4차년도, 7차년도), 언어학대 경험여부(1차년도, 4차년도, 7차년도), 방임 경험여부(1차년도, 4차년도, 7차년도)의 9개의 이분화 변수를 사용하여 표본 내의 아동발달단계에 따른 학대유형별 하위 집단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가장 적합한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기준(Information Criteria) 및 우도비 검증(Likelihood test) 수치가 활용되며 다양한 값들을 시뮬레이션으로 비교해 본 결과, 베이저안 정보기준(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조정된 베이저안 정보기준(adjusted BIC; ABIC), 그리고 붓스트랩 우도비 검증(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BLRT)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정확한 추정치를 제공한다고 밝혀지고 있다(Nylund, Asparouhove & Muthen, 2007). 그러나 최적 모델선정을 위해 고려해야할 통계 수치들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Anthony & Robbins, 2013).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과 엔트로피 지수 또한 잠재집단분석에서 흔히 활용되는 통계수치이다(Anthony & Robbins, 2013; Yampolskaya, Sharrock, Armstrong, Stronzier, & Swanke, 2014). 이러한 통계수치를 근거로 적절한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할 때, BIC와 adjuste BIC의 수치가 낮을수록 잠재집단의 수가 적절하며, 엔트로피가 1에 가까울수록 설정된 잠재집단의 수가 적절함을 나타낸다. 또한 BLRT는 잠재집단의 수가 k-1인 모델과 k인 모델을 비교하여 로그우도 분포를 바탕으로 통계적 유의도를 제공한다. k-1 집단 수와 k 집단 수 간의 p값이 0.5보다 크면 k-1 집단 수를 선택하도록 하며 반면 p값이 0.5보다 작으면 k 집단 수를 선택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발생 및 재발생 유형별로 관련요인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관련요인이 더미변수인 경우 카이검정과 비모수 카이검정방법인 Fisher exact test를 사용하였으며, 연속변수인 경우 비모수 분산분석방법인 Kruskal Wallis test를 사용하여 집단별 유의미한 특성을 파악하였다. Fisher exact test 카이검정과 유사하나 셀의 크기가 5 혹은 그 미만일 때 사용하며 Kruskal Wallis test는 분산분석과 비슷하나, 변수의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는다.

## IV. 분석결과

### 1. 표본의 특성

<표 1>은 아동의 발달단계별로 아동 및 가족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 대상 아동의 연령대별로 살펴보았을 때, 한부모가정 비율은 변동이 크게 없는 반면, 저소득 가구의 비율이 감소한 것과 동시에 복지수급 비율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부모의 우울 정도는 후기 아동기 시기에 가장 높았다가 청소년기로 갈수록 낮아지는 점이 뚜렷하다. 부모가 보고한 부부 상대방의 폭력 정도가 후기 아동기에는 높지 않았으나 전기 청소년기에 높아졌다가 후기 청소년기에 다소간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표 1. 표본의 특성

(N=381)

	1차 년도 평균 (표준편차)	4차 년도 평균 (표준편차)	7차 년도 평균 (표준편차)
아동나이	10.89 (0.86)		
부 나이	42.51 (4.73)		
모 나이	38.91 (4.10)		
한부모 가정	8.40%	8.40%	8.66%
저소득 가구	27.56%	24.93%	17.59%
복지수급가구	9.19%	12.34%	12.63%
가족 내 갈등	8.68 (2.93)	8.69 (3.32)	8.76 (2.71)
부 우울	4.50 (5.06)	3.88 (4.65)	1.83 (1.25)
모 우울	4.92 (5.90)	4.54 (5.48)	1.74 (0.92)
부가 보고한 모의 신체폭력	0.06 (0.32)	1.25 (1.48)	1.23 (1.54)
부가 보고한 모의 언어폭력	0.44 (0.76)	1.57 (1.58)	1.52 (1.63)
모가 보고한 부의 신체폭력	0.22 (0.77)	0.97 (0.58)	1.03 (1.01)
모가 보고한 부의 언어폭력	0.58 (0.83)	1.35 (0.94)	1.35 (1.24)

## 2. 아동 발달단계별 학대유형 발생비율

먼저 표본 내의 아동들이 특정한 학대나 방임을 다른 유형의 학대나 방임과 동시에 경험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학대 및 방임 유형별로 발달단계에 따른 발생비율을 살펴보았다. 후기 아동기, 전기 청소년기, 후기 청소년기의 신체학대 발생비율은 각각 13.1%, 17.6%, 10.5%, 언어학대의 발생비율은 22.3%, 30.4%, 24.4%였으며, 방임은 9.2%, 8.9%, 8.7%로 나타났다. 신체학대와 언어학대는 전기 청소년기에 가장 발생비율이 높았으며 신체학대와 방임에 비해 언어학대의 발생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그러나 신체학대는 후기 청소년기에 대폭 감소한 반면, 언어학대는 후기 청소년기에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 방임은 아동 발달단계별로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본 내의 아동들이 특정한 학대나 방임을 다른 유형의 학대나 방임과 동시에 경험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각 유형별로 발달단계에 따른 발생비율을 살펴보았다. 단일학대는 신체, 언어, 방임의 한 가지 학대유형만이 발생한 경우이며, 중복학대는 한 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 및 방임을 경험하는 경우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일 신체학대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 후기 청소년기에는 발생비율이 대폭 떨어졌으며, 방임 또한 유사한 감소 추이를 보여주었다. 단일학대인 경우 언어학대는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발생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전기 청소년기에 다소 증가하였다가 후기 청소년기에 감소하였다. 언어학대는 전반적으로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발생비율이 높았다. 중복학대의 경우 신체와 언어 중복학대는 전기 청소년기에 후기 아동기보다 거의 두 배 증가하였다가 후기 청소년기에는 다시 후기 아동기 수준으로 돌아갔다. 신체학대, 언어학대, 방임이 모두 발생하는 비율은 후기 청소년기에 증가하였으나 그 비율은 미미한 편이었다. 후기 아동기, 전기 청소년기, 후기 청소년기에 걸쳐 중복학대보다 단일학대의 발생비율이 6%에서 9%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기 청소년기 및 후기 청소년기로 갈수록, 중복학대와 단일학대의 발생비율의 격차가 9%에서 6%로 좁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2. 아동 발달단계별 학대유형 발생비율

		단위: %(명)		
분류	학대유형	후기 아동기	전기 청소년기	후기 청소년기
비학대		68.2(260)	61.2(233)	70.9(270)
단일학대	신체	4.2(16)	3.4(13)	0.2(8)
	언어	12.3(47)	15.0(57)	13.4(51)
	방임	4.2(16)	4.2(16)	2.4(9)
	소계	20.7(79)	22.6(86)	17.8(68)
중복학대	신체+언어	6.0(23)	11.5(44)	5.0(19)
	신체+방임	1.0(4)	0.8(3)	0.3(1)
	언어+방임	2.0(8)	2.0(8)	2.9(11)
	신체+언어+방임	1.8(7)	1.8(7)	3.1(12)
	소계	11.0(42)	16.3(62)	11.3(43)

잠재집단분석을 통하여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 및 재발생을 유형화하였을 때, 잠재집단 수에 따른 모델적합도 지수는 <표 3>과 같다. 2집단 모델보다 3집단 모델일 때 모델 적합도 지수가 향상되었고, 3집단 모델보다 4집단 모델일 때 적합도 지수가 향상되었다. 그러나 최종 모델을 선택할 때 모델 적합도 지수 외에 선택된 모델이 현상을 유용하게 설명하며 형성된 하위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Yampolskaya et al., 2014). 4집단 모델의 경우 특정 하위집단의 크기가 너무 작고 또한 하위 집단 간에 아동학대 유형과 아동·가족 관련요인의 차이도 명확하지 않아, 그 다음으로 적절한 모델 적합도 지수를 가지고 있는 3계층 모델을 최종 선정하였다. 3집단은 저발생형, 증가형, 지속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저발생형은 전반적으로 낮은 학대 및 방임 비율을 보이는 집단이고 증가형은 아동 발달단계에 따라 학대경험의 증가를 보이는 집단이다. 지속형은 증가 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전반적으로 학대경험이 일정비율 이상 지속되는 집단이다. 저발생형 집단은 전체 표본의 72%(n=284)를 차지하였으며, 증가형 집단은 약 9%(n=28), 그리고 지속형 집단은 약 19%(n=69)에 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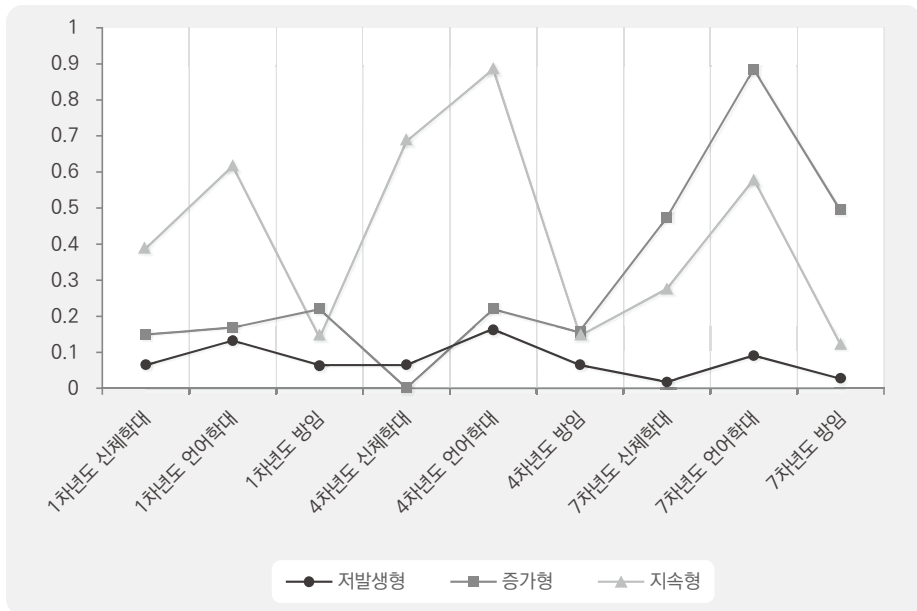
표 3. 잠재계층 수에 따른 모델 적합도 지수

	AIC	BIC	Adjusted BIC	Entropy	BLRT
2 집단 모델	339.24	414.15	353.87	0.72	p < .05
3 집단 모델	312.86	427.20	335.19	0.80	p < .05
4 집단 모델	292.39	446.16	322.42	0.83	p < .05

[그림 1]은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분류된 3개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준다. [그림 1]에서 y축의 조건항목확률(conditional item probability)은 각 집단에 소속한 아동들이 x축의 각 학대 유형을 경험할 확률을 뜻한다(Yampolskaya et al., 2014). 저발생형 집단에 속한 아동들은 발달단계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학대유형을 경험할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집단이다. 후기 아동기에서 전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학대와 방임 발생비율이 전반적으로 미미한 유형이다. 1차 년도에서 7차 년도에 걸쳐 그래프가 가장 아래에 위치하며 이는 세 가지 학대 하위유형의 발생 가능성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증가형은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신체학대, 언어학대, 방임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집단이다. 잠재집단분석에 의해 하나의 학대 하위유형(신체학대, 언어학대, 방임)의 일시적인 증감보다는 세 가지 학대 하위유형의 7년에 걸친 전체적 추이를 바탕으로 집단을 분류한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을 명명하였다. 4차 년도에는 신체학대 경험비율이 다소 감소하지만 언어학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꾸준히 증가하며 신체학대 및 방임도 7차 년도에는 1차 및 4차 년도에 비해 급격한 증가를 나타낸다. 특히 후기 청소년기에 이르러 급격한 증가폭을 보여 3개 집단 가운데 3가지 학대유형을 경험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따라서 증가형에 속한 아동들은 후기 청소년기에 신체학대, 언어학대 및 방임을 중복학대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7차 년도에 언어학대를 경험할 확률이 80~90%에 달하며, 신체학대와 방임도 50~60%정도 경험할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학대를 경험하면서 신체학대 혹은 방임을 경험하는 아동들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 지속형에 속한 아동들은 후기 아동기부터 신체학대와 언어학대를 경험할 확률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고 전기 청소년기에 신체학대 및 언어학대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후기 청소년기에 이르러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유형이다. 이 집단에 속한 아동들은 후기 청소년기인 7차 년도에 이르러서는 신체학대, 언어학대, 방임을 경험할 확률이 증가형에 속한 아동들보다 낮지만 신체학대와 언어학

대를 경험할 확률이 1차 년도와 4차 년도 모두 증가형 보다 높다. 다시 말해서 7차년에 걸쳐 전반적으로 학대 및 방임의 발생확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는 유형이다. 만성적으로 학대 및 방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고 하겠다.

그림 1. 잠재집단별 조건항목확률(conditional item probability) 도표



### 3. 아동학대 증감유형별 관련요인

앞서서 발견한 저발생형, 증가형, 지속형의 3개 집단유형 간에 관련된 요인들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포함된 변인들은 아동 나이, 부모 나이, 부가 보고한 모의 신체폭력, 부가 보고한 모의 언어폭력, 모가 보고한 부의 신체폭력, 모가 보고한 부의 언어폭력, 가족 내 갈등, 부의 우울, 모의 우울, 저소득 가구 여부, 복지수급 여부, 한부모가구 여부이다. 아동 나이와 부모 나이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은 1차(후기 아동기), 4차 (전기 청소년기), 7차 년도(후기 청소년기) 조사 값이 사용되었다.

<표 4>는 집단별로 관련요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 변인들만 연차별로 맨 왼쪽 열에 나열하여 정리하고 오른 쪽 3개 열에 집단별 평균과 비율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저발생형 집단은 다른 모든 유형에 비해 거의 모든 관련요인들이 1차, 4차, 7차 년도에 걸쳐 가장 적은 값 혹은 비율을 가지면서 가장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었다. 위의 [그림 1]에서 그래프가 가장 아래에 위치한 집단이었던 저발생형은 <표 4>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측정된 변인들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가정 내에 위험요인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증가형은 1차 년도와 7차 년도에 가족 내 갈등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 가구 비율이 1차, 4차, 7차 년도에 걸쳐 세 집단 중 가장 높았다. 한부모 가구 비율은 1차, 4차, 7차 년도에 걸쳐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며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았다. 가족 내 갈등은 1차 년도와 7차 년도 모두 다른 두 집단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을 뿐 아니라,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갈등이 더 많이 증가하였다. 지속형의 경우 가정 내 부부간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구 비율, 가족 내 갈등에서는 증가형 집단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배우자간 폭력은 4차 년도에 모에 대한 부의 언어폭력 정도가 세 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4차 년도와 7차 년도에 부가 보고한 모의 신체폭력 정도가 3개 집단 중 가장 높았다. 배우자간 폭력이 지속적으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으로써 가정 내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아동학대 증감유형별 관련요인

변인 (측정 시점)	A. 저발생형 (n=284) 평균 (표준편차), %	B. 증가형 (n=28) 평균 (표준편차), %	C. 지속형 (n=69) 평균 (표준편차), %
가족 내 갈등(1차)*	8.49(2.71)	9.82(3.14)	8.96(3.57)
한부모가구(1차)*	4.3%	21.4%	8.5%
모가 보고한 부의 언어적 폭력(4차)*	1.30(0.95)	1.35(1.11)	1.54(0.86)
부가 보고한 모의 신체적 폭력(4차)*	1.22(1.45)	0.92(0.58)	1.51(1.79)
한부모가구(4차)*	4.3%	21.4%	8.1%
가족 내 갈등(7차)*	8.54(2.53)	10.18(3.29)	9.07(2.98)
부가 보고한 모의 신체적 폭력(7차)*	1.20(1.45)	1.08(1.78)	1.38(1.78)
한부모가구(7차)*	5.8%	21.4%	7.75%

p<.05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어떤 아동학대 유형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아동 발달단계별로 학대가 지속하는지 아니면 증가 혹은 감소하는지, 그리고 증감추이를 집단유형으로 분류하였을 때 관련요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 내의 아동들이 특정한 학대나 방임을 다른 유형의 학대나 방임과 동시에 경험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학대 및 방임 유형별로 발달단계에 따른 발생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후기 아동기, 전기 청소년기, 후기 청소년기의 신체학대 발생비율은 각각 13.1%, 17.6%, 10.5%, 언어학대의 발생비율은 22.3%, 30.4%, 24.4%였으며, 방임은 9.2%, 8.9%, 8.7%로 나타났다. 다른 유형의 학대나 방임과 동시에 경험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단일학대 및 중복학대로 분류한 후 아동 발달단계별 아동학대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후기 아동기, 전기 청소년기, 후기 청소년기에 걸쳐 각각 31.7%, 38.9%, 29.1%의 아동이 신체학대, 언어학대, 방임 가운데 적어도 1개 이상의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복지패널 자료가 전국적인 대표성을 가진 표본임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단일학대이거나 중복학대이거나를 불문하고 전기 청소년기에 학대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기 청소년기 아동이 학대 피해비율이 높은 것은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전기 청소년기에 가장 발생비율이 높은 학대유형은 신체학대와 언어학대였다. 그러나 신체학대는 후기 청소년기에 감소한 반면, 언어학대는 후기 청소년기에 이르러도 감소폭이 크지 않아 후기 아동기 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실제로 언어학대는 아동 발달단계 전 기간에 걸쳐 신체학대와 방임에 비해 발생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앞서 서론과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 청소년기 아동이 이 시기에 겪는 신체적, 심리사회적, 성적 변화와 더불어 자주 발현되는 문제행동이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임을 논술한 바 있다. 그 결과 전기 청소년기 아동은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특히 언어학대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국내외 관련연구에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따라서 전기 청소년기 즉 중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언어학대에 대한 집중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 준다. 예를 들어 초기 청소년기에 부모-자녀관계에서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부모 상담을 활성화할 수 있다.

셋째, 방임은 후기 아동기, 전기 청소년기, 후기 청소년기에 이룰수록 조금씩 감소하지만, 큰 변화의 폭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가정에서 만성적인 방임이 지속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 발달단계에 따라 방임의 감소비율이 크지 않은 점은 해외 관련연구들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Barth et al., 1994; Jonson-Reid, 2002; Raissian et al., 2014). 이는 방임이 성학대를 제외하고 신체학대나 정서학대에 비해 발생비율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후기 아동기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데서 비롯된 연유일 것이다. 실제로 방임은 1세 미만의 영유아시기에 가장 높고 아동이 발달하면서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넷째, 단일학대의 비율이 중복학대의 비율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 발달단계별로 단일학대와 중복학대의 증감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점은 아동 발달단계별로 학대유형의 변동이 크게 없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단일학대이던 중복학대이던 가정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학대유형이 대체로 지속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학대 유형이 크게 변동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후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 학대유형의 변동성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군집분석을 통하여 아동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학대 증감추이를 집단으로 분류한 결과, 미발생형, 증가형, 지속형의 3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3개 유형의 구성비는 각각 72%, 9%, 19%였다. 유형별로 관련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증가형은 1차 년도와 7차 년도에 가족내 갈등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 가구 비율이 1차, 4차, 7차 년도에 걸쳐 가장 높았다. 이는 한부모가구에서 아동학대가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함을 보여주는 것이며(Bae et al., 2007; Jonson-Reid et al., 2003), 또한 한부모가구는 빈곤과 불가분 연관성이 있어 빈곤과 아동학대의 관련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광혁, 김예성, 2008; 이봉주, 김세원, 2005).

지속형의 경우 가정 내 부부간 언어 및 신체폭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부모가 보고한 부부 상대방의 폭력 정도가 후기 아동기에는 높지 않았으나 전기 청소년기에 높아졌다가 후기 청소년기에 다소간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아동학대의 증감 추이와 유사한 양태를 보여주었다. 이는 아동학대의 지속성에 부부폭력이 유의미한 영향

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높은 상관성을 입증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배화옥, 2015). 아동학대 발생 및 재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밝혀진 가정폭력의 방지와 예방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개입방법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개입 방법으로는 교육, 상담, 친교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갈등대처전략을 익힐 수 있는 부부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두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아동부가조사 가운데 아동학대에 관한 문항을 사용하여 학대유형을 분류하였고 '1년에 1~2번 정도' 혹은 그 이상의 빈도를 학대발생 여부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측정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예측요인이 추가되어야 함을 지적할 수 있다. 아동의 문제행동과 같은 아동학대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아동특성 요인이 누락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 발달단계별 아동학대의 특성을 파악하고 학대의 증감추이를 유형화하였으며 유형별 관련요인을 분석한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배화옥은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학대, 아동빈곤, 여성장애인 등이다.  
(E-mail: hobae@gnu.ac.kr)

강지영은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 아동 복지서비스 효과성 등이다.  
(E-mail: jykyang@sookmyung.ac.kr)

## 참고문헌

- 김광혁, 김예성. (2008). 가족빈곤이 아동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부모의 우울 및 가족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충북가정학회지)*, 17(5), pp.847-859.
- 김혜영, 장화정. (2002). 아동학대 유형별 영향을 미치는 부모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아동과 권리*, 6(2), pp.269-286.
- 김현옥, 김경호. (2011). 아동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 효과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67, pp.219-243.
- 배화옥. (2010). *아동과 복지*. 서울: 신정출판사.
- 배화옥. (2015). 아동학대 발생추이에 미치는 부부폭력의 영향에 대한 연구. *아동과 권리*, 19(2), pp.139-162.
- 배화옥, 강지영. (2015). 아동방임 재발유형과 관련요인. *보건사회연구*, 35(1), pp.455-474.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이봉주, 김세원. (2005). 아동학대와 방임의 사회구조적 요인: 빈곤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아동권리연구*, 9(3), pp.347-374.
- 이현기. (2005). 아동학대 유형별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3, pp.77-108.
- 장화정. (2004). 아동학대와 피해아동의 특성, *아동권리연구*, 8(4), pp.777-792.
- 장화정, 강미경, 신소현. (2000). 가정내 위기요인과 아동학대의 관계, *아동과 권리*, 4(2), pp.125-138.
- Anthony, E. K. & Robbins, D. E. (2013). A latent class analysis of resilient development among early adolescents living in public housing.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5(1), pp.82-90.
- Bae, H., Solomon, P. L., & Gelles, R. J. (2007). Abuse type and substantiation status varying by recurrenc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9(7), pp.836-869.

- Barth, R. P., Courtney, M., Berrick, J. J., & Albert, V. (1994). *From Child Abuse to Permanency Planning*. Walter de Gruyter, Inc.
- Belsky, J. (1993). Etiology of child maltreatment: a developmental-ecologic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4(3), pp.413-434.
- Connell, C. M., Bergeron, N., Katz, K. H., Saunders, L., & Tebes, J. K. (2007). Re-referral to child protective services: The influence of child, family, and case characteristics on risk status. *Child Abuse & Neglect*, 31(5), pp.573-588.
- Coohey, C., & Zhang, Y. (2006). The role of men in chronic supervisory neglect. *Child Maltreatment*, 11(1), pp.27-33.
- DePanfilis, D., & Zuravin, S. J. (1999). Epidemiology of child maltreatment recurrences. *Social Service Review*, 73, pp.218-239.
- Drake, B., & Pandey, S. (1996).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poverty and specific types of child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20(11), pp.1003-1018.
- Drake, B., Jonson-Reid, M., Way, I., & Chung, S. (2003). Substantiation and recidivism. *Child Maltreatment*, 8(4), pp.248-260.
- Finkelhor, D., Ormrod, R., Turner, H., & Hamby, S. L. (2005). The victimization of children and youth: A comprehensive, national survey. *Child Maltreatment*, 10, pp.5-25.
- Fluke, J. D., Yuan, Y., & Edwards, M. (1999). Recurrence of maltreatment: an application of the national child abuse and neglect data system (NCANDS). *Child Abuse & Neglect*, 23(7), pp.633-650.
- Fryer, G. E., & Miyoshi, T. J. (1994). A survival analysis of the revictimization of children: The case of Colorado. *Child Abuse & Neglect*, 18, pp.1063-1071.
- Hazen, A. L., Connelly, C. D., Roesch, S. C., Hough, R. L., & Landsverk, J. A. (2009).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4(2), pp.361-378.
- Jonson-Reid, M. (2002). After a child abuse report: early adolescents and the Child Welfare Syst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2(1), pp.24-48.
- Jonson-Reid, M., Drake, B., Chung, S., & Way, I. (2003). Cross-type recidivism

- among child maltreatment victims and perpetrators. *Child Abuse & Neglect*, 27, pp.899-917.
- Lipien, L., & Forthofer, M. S. (2004). An event history analysis of recurrent child maltreatment reports in Florida. *Child Abuse & Neglect*, 28, pp.947-966.
- McBride, B. A., Schoppe, S. J., & Rane, T. R. (2002). Child characteristics, parenting stress, and parental involvement: Fathers versus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pp.998-1011.
- Mersky, J. P., Berger, L. M., Reynolds, A. J., & Gromoske, A. N. (2009). Risk factors for child and adolescent maltreatment: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a cohort of inner-city youth. *Child Maltreatment*, 14(1), pp.73-88.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 pp.535-569.
- Palusci, V. J. (2011). Risk factors and services for child maltreatment among infants and young childre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3(8), pp.1374-1382.
- Putnam, F. W. (2003). Ten-year research update review: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dolescent Psychiatry*, 42, pp.269-278.
- Raissan, K. M., Dierkhising, c. B., Geiger, J. M., & Schelbe, L. (2014). Child maltreatment reporting patterns and predictors of substantiation: comparing adolescents and younger children. *Child Maltreatment*, 19(1), pp.3-16.
- Santrock, J. W. (1998). *Child Development*. 8th Ed.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 Seifert, K. L., & Hoffnung, R. J. (2000).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Fifth Ed. Houghton Mifflin Company.
- Slack, K. S., Holl, J., Altenbernd, L., McDaniel, M., & Stevens, A. B. (2003). Improving the measurement of child neglect for survey research: Issues and recommendations. *Child Maltreatment*, 8(2), pp.98-111.
- Steinberg, L., & Morris, A. S. (2001). Adolescent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pp.83-110.

Thomas, R. M. (2000). *Comparing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Fifth Ed.  
Wadsworth: Belmont, CA.

Yampolskaya, S. Sharrock, P., Armstrong, M. I., Strozier A., & Swanke, J. (2014).  
Profile of children placed in out-of-home care: Association with permanency  
outcom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6, pp.195-200.

Way, I., Chung, S., Jonson-Reid, M., & Drake, B. (2001). Maltreatment perpetrators:  
a 54-month analysis of recidivism. *Child Abuse & Neglect*, 25, pp.1093-1108.



# Child Abuse and Neglect by Child Developmental Stages

**Bae, Hwa-ok**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ang, Jiyoung**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most frequent child maltreatment types in late childhood, early adolescence and late adolescence, and the trends of child maltreatment prevalence by maltreatment types in different developmental stages. It also tries to find subgroups based on the trends of maltreatment prevalence by the types in developmental stages and examine the correlates of the subgroups at child, care-giver and family levels. The sample includes 381 4th-6th grade children and their caregivers who participated in the wave 1, 4, and 7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results indicate that in early adolescence, physical abuse and verbal abuse were the most frequent maltreatment types. Neglect was the most frequent type of maltreatment in late childhood which decreased as children go through adolescence, but only to a minor extent. The findings imply that interventions are needed for preventing physical and verbal abuse in early adolescence. Latent class analysis found 3 groups based on the trend in child maltreatment prevalence-low occurrence, increase, and decrease. The three group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ate of single parent family, the degree of family conflict, and spouse violence. We discussed future research directions.

---

**Keywords:** Child Developmental Stages, Child Abuse and Neglect, Subgroups, Latent Class Analysis